**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미디어 데이 참가 선수 인터뷰**

- 대 회 명: 2025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

- 대회 기간: 2025년 6월6일(금) ~ 6월8일(일)

- 대회 장소: 성문안 CC

- 대회 주관: KLPGT (한국여자프로골프투어)

- 대회 주최: 셀트리온그룹

- 총상금: 12억원 (우승상금: 2억1천6백만 원)

- 코스 길이: 파72, 6494야드

- 참가 인원: 120명

- 미디어 데이 참석 선수

박민지(27, NH투자증권), 이예원(22, 메디힐), 홍정민(23, CJ),

정윤지(25, NH투자증권)

이예원

Q. 올해 벌써 3승을 기록한 상금랭킹 1위 이예원 선수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A. 네 우선 3승을 빠르게 기록했지만 올해 목표는 4승 그 이상으로 잡았기 때문에 얼른 4승을 하고 싶고요, 셀트리온 대회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올해는 그 아쉬움을 풀고 싶습니다

Q. 골프가 꾸준하게 좋은 성적을 유지하기가 많이 어려운 종목인데, 슬럼프가 없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이 있을까요?

A. 노하우인지 모르겠으나 저는 대회가 끝나면 꼭 휴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대회가 끝나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루는 쉬어주는 편이고 체력을 비축으로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대회 때 좀 더 좋은 성적이 나옵니다.

박민지

Q. 이번 셀트리온 퀸즈 마스터즈는 성문안에서 펼쳐지게 되는데요. 새로운 대회장, 성문안 라운드를 해본 소감 및 코스 공략법이 있을까요?

A. 네 제가 벌써 4연패를 했는데요 첫 번째 우승은 서서울이였고 3번은 설해원 이고 이번에는 성문안이어서 코스가 잘 맞아서 우승했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코스 공략이 마음 먹은대로 샷 감이 맞아 떨어져야만 좋은 스코어가 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음 뭐 다른 선수들도 마찬가지지만 오히려 긴장을 풀 수 없어 한 타 한 타 정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드라이버를 페어웨이에 넣고 세컨드 샷을 핀에서 좀 더 퍼트하기 쉬운 곳에 붙이고 그 공을 잘 넣으면 우승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Q. 부담 드리고 싶지 않지만 많은 골프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단일대회 5연패에 도전하는 각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A. 2024년 4연패 도전할 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마다 우승하라고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5연패라는 영광스러운 기록에 도전을 하다 보니 부담감을 다 받아드리고 오히려 즐기려고 합니다.

정윤지

Q. 먼저 직전 대회인 SH 수협은행 MBN 여자오픈 우승 및 시즌 첫 승 축하 드립니다. 그리고 광장 앞 정윤지 프로님이 보낸 커피차에서 맛있는 음료 잘 먹었습니다. (6/5 공식 연습일 정윤지 프로 커피차 제공)
우승 후 많이 바쁘셨을 것 같은데요? 우승 후 어떤 시간을 보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 말씀 하신 것처럼 정신 없이 보냈고 우승 후에 시간이 천천히 흘러갔으면 좋았을 텐데 빨리 가서 아쉬웠습니다. 감사한 분들께 인사하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 이번 대회는 잘 준비를 하지 못했 던 것 같습니다.

Q.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대회를 더 남다른 각오로 참가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대회의 도전자로써 박민지 프로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A. 이제 2주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선수로서 이러한 기회 자체에 감사하고, 내일 존경하는 민지 선배와 대세인 이예원 선수와 함께 플레이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홍정민

Q. 이번 시즌 우승을 포함하여, TOP10 진입이 5번이나 있을 정도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컨디션을 관리하시기위한 루틴이 있으실까요?

A. 저는 시즌 시작하고 나서 감이 올라옵니다. 시즌 국내 개막전부터 이예원 선수와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감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비결은 딱히 없고,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Q.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와 우승을 위해 뭔가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A. 성문안 코스를 작년에는 대회가 없고 2년 만에 하는 건데 코스 난도가 많이 어렵고 힘들더라구요. 오르막도 많고 체력 비축이 중요한 것 같고 일반적인 양잔디가 아니라 조금 더 어렵더라구요. 파 세이브를 잘 하는 게 목표입니다.

Q. 코스 애기를 하지 않는 정윤지 선수부터 간략하게 질문을 드리자면 이 코스는 이 홀들을 좀 조심해야 겠다라는 홀들이 있을까요???

A. 당연히 승부 홀이라고 하면 첫 홀과 끝 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에 있어서는 2번 홀, 끝나갈 때 쯤에는 16번 홀과 마지막 18번 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둘 다 파5홀인데, 7번 홀은 컨디션이 좋으면 투 온을 노릴 수도 있고, 마지막 홀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세개의 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그럼 이예원 선수도 이렇게 성문안을 돌아보셨을 때 코스의 느낌이라던지 특징 어느 홀을 조심해야 한다고 느꼈는지?

A. 우선 티 샷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러프에서 그린 공약이 까다롭다고 생각을 해서 티 샷이 페어웨이를 지키는 것이 타수 줄이는데 유리한 것 같고, 세컨드 샷도 아까 민지언니가 말한 것처럼 그린에 올려서 파온율을 좀 높여야 차분하게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먼저 공동질문을 드렸고 이제 기자님들 께서도 궁금한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질의를 원하시는 기자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Q. 2년전의 성문안에서 대회 했을 때 기록을 좀 살펴보았는데 박민지, 정윤지 선수는 컷 통과에 실패했고, 홍정민 선수가 네 분 중에는 성적이 제일 좋아서 홍정민 선수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2년전에 경험하셨던 이 코스에서 어떤 부분들이 좀 잘 되었는지, 그래도 이 네 분 중에 성적이 가장 좋았다고 생각이 드는지??

사회자: 당시 3언더파 공동 16위의 기록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기억을 한번 생각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홍정민: 그때 조금 바람이 많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랬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선수들이 스코어가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 날 제가 성적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티 샷이 페어웨이를 지켰기 때문에, 날씨가 안 좋은 상황에서도 타수를 잃지 않고 잘 싸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추가질문을 원하시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가볍게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각하실 시간을 조금 드리는 동안에 제가 준비한 공통 질문 한두 가지를 더 드리면 이예원 선수 먼저 그럼 이번 대회 나 자신을 제외하고 스스로가 생각하는 파워랭킹 1위를 뽑아 주시고 그 이유를 부탁드릴게요.

이예원: 민지 언니라고 생각합니다. 셀트리온 대회는 고민하지 않고 저는 민지 언니가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고 또 매년 언니가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올해도 언니가 제일 잘 할 것 같아요.

박민지: 예원이요. 왜냐하면 예원이가 최근 3년동안 정말 감이 좋고 모든 코스에서 플레이를 되게 영리하게 잘 하더라구요, 그래서 저는 모든 대회에 무르익은 예원이가 파워랭킹 1위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지: 저는 딱 두 분이 떠오르는데요 한 분은 제 오른쪽에 있는 민지 언니구요, 예원이 말대로 셀트리온 하면 민지언니가 생각납니다. 그래서 저는 5연패를 정말 응원도 하고요, 또 한 선수는 방신실 선수가 생각나요.2년 전에 방신실 선수가 이 곳에서 생애 첫 우승을 이뤄서 성문안에서 강한 선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홍정민:저도 민지언니가 잘할 것 같고, 언니가 꼭 5연패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우승을 하고 싶지만, 그 역사에 같이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워요. 지금도 함께 하고 있는게 좋지만 그냥 응원하는 마음이 큽니다.

박민지: 정말 감동이네요.